

보름달 기차 타고 즐기는 알프스



스위스 래티쉬 철도(RhB)가 3월 초까지 보름달 파노라마 열차(Full Moon Train)를 운행한다. 지붕 모서리까지 창문으로 개조한 파노라마 차량의 폭신한 좌석에 앉아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보름달 열차는 오후 6시 15분 생모리츠에서 출발해 베르너의 빙하지대, 알프 그림을 지나 생모리츠로 오후 11시 10분 돌아온다. 알프 그림에서는 산장식당에서 스위스 빙하를 이용한 풍미를 맛볼 수 있다. 전문 가이드 3명은 알프스산맥과 푸른 빙하지대, 아가지기한 산간 마을을 지나는 동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보름달 열차는 1월 18~19일, 2월 18~19일, 3월 20~21일 운행한다. 요금은 성인 87스위스프랑(약 10만원), 만 6~16세와 스위스트래블패스 소지자 73스위스프랑(약 8만3천원)이다. www.rhb.ch

세계 1천 대 레스토랑에 한국 식당 15곳 선정



프랑스관광청은 서울신라호텔 한식당 '라연'을 비롯한 한국 식당 15곳이 프랑스의 미식 가이드인 '라 리스트 2019'(LA LISTE 2019)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라 리스트는 온라인 관광·미식 사이트와 미쉐린 가이드, 뉴욕타임스 등 전

세계 유명 레스토랑 관련 리뷰, 전 세계 요식업자 설문 등을 총망라해 결정된다. 라연은 라 리스트에서 175위에 올라 한국 레스토랑 중 처음이자 유일하게 상위 200위 안에 들었다. 이밖에 서울신라호텔의 프렌치 레스토랑 '콘티넨탈'과 일식당 '아리아게', 정식당, 밍글스, 가온, 알라프리카, 메르세엘, 랩 24, 스시선수, 스시초희, 라미띠에, 스와니에, 테이블 34, 스시호, 스시조가 1천위 안에 들었다. 1위는 옛 파리 조폐국에 위치한 '기 사부아' 레스토랑과 뉴욕의 '르 베르나르맹'이 공동 선정됐다.

몰디브, '2018년 세계 최고의 다이빙 목적지'에 선정

몰디브가 지난 12월 1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월드 트래블 어워드(WTA)에서 2018년 세계 최고 다이빙 목적지로 선정됐다. 월드 트래블 어워드는 여행, 관광, 서비스 산업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업체를 선정,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93년에 제정됐다. 몰디브의 각 리조트는 공항 리조트, 하니문 리조트, 럭셔리 프라이빗 아일랜드 리조트, 워터 빌라 리조트, 가장 로맨틱한 리조트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2017년 몰디브를 찾은 관광객은 130만여 명이었다. 몰디브관광청의 최근 설문에 따르면 몰디브 방문객 중 65% 이상은 바닷속이 아름답기 때문에 몰디브를 찾았다고 밝혔다.



'2019 다카르 랠리' 페루에서 단독 개최된다

세계 최고의 오프로드 경주대회 '2019 다카르 랠리'가 1월 6~17일 페루에서 개최된다. '지옥의 레이스'로 불리는 다카르 랠리는 매년 1월 열리는 오프로드 경주대회로, 모든 레이스가 단일 국가에서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534명이 참가해 총 5천km를 달린다. 코스는 수도 리마에서 출발해 피스코, 산후안 데 마르코나, 아레키파로 이어진다. 페루관광청은 국민 브랜드 '피스코'가 탄생한 피스코의 포도농장, 산후안 데 마르코나의 아름다운 해변과 바다, 아레키파의 미스티 화산, 타크나의 운천 등을 레이스 코스 방문 명소로 추천했다.



벨기에에서 만화 주인공들을 만나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인기 만화 캐릭터 스머프 탄생 60주년을 기념해 1월까지 박람회가 열린다. 스머프 체험관의 스머프 빌리지에는 버섯 모양의 스머프 집이 들어서 있다. 마법사 가가멜과 대결하는 VR 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브뤼셀 공항에는 또 다른 유명 만화 '틴틴'에 등장하는 주인공 틴틴과 로켓이 설치돼 있어 기념촬영 장소로 인기가 높다. 시내에서는 건물 외벽에 그려진 수많은 만화 캐릭터를 찾아다니는 여행도 할 수 있다. 브뤼셀과 안트워프에 있는 만화 전용 박물관과 체험관에서는 다양한 만화의 주인공과 전 세계 만화책을 만날 수 있다.

여행 경비 부담 없는 두바이 겨울 여행



겨울은 두바이로 여행 떠나기 가장 좋은 시기다. 기온이 18~28도여서 여행하기 좋다. 두바이관광청이 여행 경비를 아끼고 재미를 두배로 늘릴 수 있는 여행 코스를 소개한다.

라이프 마켓 현지인이 찾는 인기 로컬마켓으로, 각종 식재료와 테이크아웃 음식, 디저트, 공예품, 패션 용품, 완구 등을 판매한다. 라이브 음악, 요기수업, 키즈 액티비티 프로그램, 워크숍 등 즐길 거리도 마땅해 있다. 라이프 마켓은 4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움 수케임(Umm Suqeim) 지역에 있는 두바이 폴리텍 아카데미 공원에서 열린다.

알 신다그하 역사지구와 알 시프 올드 두바이에 있는 알 신다그하(AI Shindagha) 역사지구는 1912년부터 1958년까지 두바이를 통치했던 셰이크 사이드 알 막툼의 저택이 있는 곳이다. 현재 이곳은 사진, 동전, 우표, 서류 등을 전시해 두바이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알 시프(AI Seef)는 두바이의 옛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복합문화공간이다. 현지 브랜드의 부티크숍, 팝업스토어, 카페, 레스토랑 등이 자리하고 있다.

두바이 해변 하얀 모래사장서 노을을 감상하는 것도 좋다. 알 마나라(AI Manara) 사거리에는 카이트 비치(Kite Beach) 근처에는 인기 맛집과 카페, 푸드트럭이 있어 맛있는 음식을 싼 가격에 즐길 수 있다.

포시즌스 오아후, 2019년 새 패키지 출시



하와이 오아후섬에 있는 포시즌스 리조트 오아후 옛 코올라나가 새로운 객실 패키지 4개를 12월 19일까지 선보인다. 우선 오전 6~11시에 건강 조식 패키지를 선보인다. 조식은 2인 기준으로 아메리칸 콘티넨탈 레스토랑 '라히키'(La Hiki)에서 할 수 있다. 건강식 메뉴는 물론 현지 신선 재료로만 만든 각종 요리를 뷔페로 맛볼 수 있다. '익스피리언스 모어'는 2박 이상 투숙 시 리조트 크레딧을 제공하는 패키지다. 리조트 룸~오션 프론트 룸 예약 시 1박당 50달러, 주니어 스위트룸 이용 시 100달러, 원베드룸 스위트룸 이용 시 200달러 크레딧을 제공한다. 리조트 크레딧은 레스토랑, 바, 스파, 인룸 다이닝, 키즈 클럽, 카바나 패키지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스테이 룡거'는 3박 이상 투숙 시 추가

1박을 무료로 제공하는 패키지다. 객실 종류와 관계없이 3박 연속 투숙하면 적용된다. '패밀리 게터웨이'는 객실 2개를 3박 이상 이용하면 두 번째 객실을 50% 할인해 주는 패키지다. 모든 레스토랑에서 어린이 전용 메뉴가 제공되고, 만 5세 이하 유아는 모든 메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드래곤시티, '알라메종 델리' 개장

서울드래곤시티가 이비스 스타일 엠베서더 서울 용산 1층에 정통 프렌치 베이커리 '알라메종 델리'(A La Maison Deli)를 개장했다. 알라메종 델리는 프랑스어로 '섬광'을 뜻한다. 섬광처럼 빠르게 먹을 정도로 맛있는 베이커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크림으로 속을 채운 에글레트, 부드러운 맛의 슈(Choux), 크루아상, 바게트, 다쿠아즈, 마카롱 등 베이커리 40종과 샐러드, 샌드위치, 케이크 등을 선보인다. 음료는 커피, 에이드, 스무디를 준비한다. 딸기, 민트, 얼그레이, 루이보스 아몬드, 로열 밀크티 맛의 블렌디드 밀크도 있다.



트럼프 호텔 와이키키, 새해맞이 프로모션



미국 하와이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와이키키가 새해맞이 프로모션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 기간에는 디럭스 투 베드룸 시티뷰 스위트 객실을 888달러에 이용할 수 있다. 레스토랑 와이올루 오션쿠진에서 이용할 수 있는 88달러 크레딧도 주어진다. 레지던스 스타일의 디럭스 투 베드룸 시티뷰 스위트는 106㎡(32평)로, 6명까지 투숙할 수 있다. 프라이빗 발코니에서는 도심 풍경을 조망할 수 있다. 호놀룰루공항에서 13km 떨어진 트럼프 호텔 와이키키는 호텔과 콘도미니엄이 결합한 레지던스 형태의 숙박시설이다. 스위트 객실은 고급 전자제품으로 꾸민 키친을 갖추고 있다. ☎ 02-733-9037

에어비앤비, '2019년 떠오를 여행지는 어디?'

에어비앤비가 2017년 동기 대비 예약률과 이용자 검색량을 토대로 2019년 떠오를 여행지 19곳을 발표했다. 2019년 떠오를 여행지의 특징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현지인과 여행자 모두에게 유익한 여행지들이다. 떠오를 여행지 1위로는 뉴질랜드 카이코우라가 꼽혔다. 2016년 지진 피해를 본 마을로 2017년 동기 대비 예약률과 검색량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곳은 역사적인 포경 마을로 향유고래를 만날 수 있다. 2위는 해산물로 유명한 중국 사먼이다. 현지 디저트 숍에서 빵 굽기에 도전하거나 지역 펍을 돌아다니며 여행할 수 있다. 3위는 건축, 역사, 요리를 주제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멕시코 푸에블라가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프랑스 노르망디, 미국 그레이트스모키산맥,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가나 아크라, 모잠비크, 스코틀랜드 아우터 헤브리디스, 일본 오카야마현 등이 떠오를 여행지로 선정됐다.



포시즌스 홍콩, 미쉐린 스타 8개 획득



포시즌스 호텔 홍콩이 올해 총 8개의 미쉐린 스타를 획득,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을 보유한 호텔이 됐다. 포시즌스 홍콩에서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레스토랑은 총 세 곳으로, 광둥 요리를 선보이는 '룽킹린', 프렌치 파인 다이닝 '카프리스', 일식당 '스시 사이트'다. 룽킹린은 전 세계 중식당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쉐린 3스타를 획득한 곳이다. 최고의 광둥요리와 담섬을 맛볼 수 있다. 식당에서는 빅토리아 항구가 내려다보인다. 카프리스도 미쉐린 3스타를 획득했다. 홍콩 최대 와인 리스트와 치즈 셀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오픈 키친으로 설계돼 셰프들의 요리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 9만대부터 시작하는 평일 3코스 점심 메뉴가 인기가 높다. 미쉐린 2스타를 획득한 스시 사이트는 일본 도쿄의 초밥 장인 타카시 사이트 셰프의 일식당 '스시 사이트'의 최초 해외 직영점이다. 제철 해산물을 사용해 전통적인 도쿄식 요리를 선보인다.

퀵스틴 제주, 여름·겨울을 함께 경험하는 파티 언더

퀵스틴 제주 호텔이 루프톱의 스카이프니티 풀에서 여름과 겨울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파티인 '부다페스트 스파티'를 3월 31일까지 선보인다. '스파티'(Sparty)는 스파(Spa)와 파티(Party)의 합성어다. 루프톱 스카이프니티 풀과 클럽하우스에서는 하우스 DJ의 EDM(일렉트로닉 댄스뮤직) 디제잉을 비롯해 낭만적인 팝페라, 힙합과 R&B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한라산과 제주 중문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이글루 바에서는 낮에는 따뜻하게 태닝을 즐기고 밤에는 별빛이 쏟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뱅쇼, 페스티벌 스낵, 구운 마시멜로를 맛볼 수 있는 시설도 마련돼 있다. 샴페인, 와인, 맥주, 칵테일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파티는 매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며, 가격은 3만원이다. ☎ 064-735-8908



진에어, 인천~호놀룰루 복항 기념 특가



진에어가 하와이 노선 복항을 기념해 1월 13일까지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특가 항공권은 1월 9일~3월 2일 운항편을 대상으로 한다. 가격은 왕복 총액 기준 58만7천300원부터. 위탁 수하물 2개(각 23kg 이하), 기내식 2회 등 기본 서비스를 포함한다. 인천~호놀룰루 노선 항공편은 오는 3월 2일까지 주 5회(월·수·목·토·일) 일정으로 운항한다. 출발편은 인천에서 오후 7시 55분 출발해 같은 날 오전 8시 45분 호놀룰루에 도착하고 복항편은 오전 11시 5분 출발해 다음 날 오후 5시 35분 돌아온다. 해당 노선에는 B777-200ER이 투입된다. 일반 좌석보다 앞뒤 간격이 15cm 더 넓은 지니플러스 시트, 반려동물 위탁 수하물 탑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캐세이퍼시픽, 겨울철 항공권 특가 판매

캐세이퍼시픽은 2월까지 출발하는 일반석과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권을 특가에 판매하고, 홍콩 데이투어를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겨울 프로모션을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인천~홍콩 왕복 항공권 가격은 세금과 유류할증료를 포함해 일반석 30만8천200원부터, 비즈니스석은 75만4천800원부터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홍콩의 주요 관광명소를 짧은 시간에 둘러볼 수 있는 홍콩 데이투어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홍콩 항공권이나 에어텔 상품을 구매할 이들에게 50% 할인 혜택을 준다. 홍콩 데이투어는 오후(14:30~18:30)와 야간(16:00~22:00)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품에는 공항~시내 홍콩공항철도(AEL) 왕복 티켓이 포함된다. www.cathayair.com/kr



터키항공, 유럽과 아프리카로 가는 하늘길 넓힌다

터키항공이 이스탄불과 아프리카 서부 감비아의 수도 반줄을 잇는 신규 노선 운항을 시작했다. 이 노선은 터키항공의 아프리카 54번째 취항 노선이다. 세네갈 다카르 노선과 연계해 주 2회 운항한다. 1월 7일부터는 앙카라~로마 노선 운항을 약 60년 만에 재개한다. 이 노선 항공편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왕복 운항한다. 케렘 사르프 터키항공 세일즈 수석부사장은 "이번 반줄로의 신규 취항은 감비아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비엠펙항공, 인천~푸꾸옥 정규 노선 운항



베트남 국적 비엠펙항공이 지난 12월 22일부터 인천~푸꾸옥 노선 직항편을 주 7회 일정으로 운항하기 시작했다. 인천공항에서 오전 1시 45분 출발해 푸꾸옥에는 현지시간 오전 5시 35분 도착한다. 복항편은 오후 3시 30분 출발해 오후 10시 45분 돌아온다. 운항 시간은 5시간 30분. 푸꾸옥은 베트남 최남단에 있는 섬으로 허핑턴포스트가 최근 '더 유명해지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로 꼽은 곳이다. 제주도의 3분의 1 크기로 풍광이 아름답고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생물권 보존지역이기도 하다. 보석처럼 아름다운 바다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길이 7.9km의 해상 케이블카, 열대 과일과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던커우 야시장, 아름다운 해변인 사오비치가 주요 명소다.

영국항공, '2019년 꼭 가보아야 할 여행지' 19곳 선정

영국항공이 새해 인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여행지 19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여행지는 더반, 피츠버그, 오사카, 마라케시, 세이셸, 바베이도스, 토론토, 에든버러, 소피아, 잘츠부르크, 몰타, 쾰른, 시드니, 크로아티아, 코스, 칸쿤, 라스베이거스, 두바이, 도쿄 등이다. 클레어 번틀리 영국항공 홀리데이 국장은 "이번에 선정한 여행지는 영국항공의 여행 전문가가 세계 여행지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라며 "2019년에는 다양한 여행지가 고루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프린세스 크루즈, 유럽 크루즈 특가 판매

프린세스 크루즈 한국지사가 유럽 크루즈 상품을 특별 요금에 선보인다. 바르셀로나, 지브롤터, 마르세유, 제노바, 피렌체, 로마로 이어지는 자중해 7일을 비롯해 11, 12, 13, 15일 등 다양한 일정의 상품이 마련돼 있다. 선내 숙박, 하루 5회 이상 식사, 다양한 선내 프로그램과 엔터테인먼트, 24시간 룸서비스, 선상 시설 이용 등이 포함된 7일 상품 가격이 114만원이다. 지 찬 프린세스 크루즈 한국지사는 "유럽은 5월부터 11월까지 크루즈 여행 기간이 길게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라며 "오랜 역사와 전통, 문화, 맛있는 음식, 대자연 등 기항지마다 개성이 있어 크루즈 여행객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www.princesscruises.co.kr, ☎ 02-318-1918

